

##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“거창사건 다룬 소설 나왔다”-盧淳子씨「산울음」등 2편 연작폐쇄/비극의 현장서 학살당한 양민에 초점(경향신문 5월19일 孫東佑기자)
- “대기업 책출간 경쟁”-연구활동실적 대외과사/두산, 해태, 삼성 등 줄이어... 대우학술총서는 140권 나와/인문·자연과학 등 전문분야에 역점 “기초학문 발전에 기여”(스포츠서울 5월20일 오정국기자)
- “우리가락”전집 나왔다-「뿌리깊은 나무」서 음반·악보집/전통민요는 남부의 중요한 ‘슬픈소리’ 수록/散調음악은 현존하는 최고名人이 연주/산조는 첫음반... 우리음악사의 쾌거(한국일보 5월20일)
- “추리소설 전문출판사 늘고 있다”-신작발행 붐... 필자에 선금 주며 “씨달라” 통사정(스포츠서울 5월21일 황성기기자)
- 만화잡지 猛威 “아동교양지 설 땅이 없다”-한때 어린이 사랑받던 「어깨동무」 「꿈나무」 등 모두 폐간/마지막 보루 「새소년」마저 재정난에 흔들/「교양만화도 필요하지만 기형적 효과」 우려(세계일보 5월21일 申敏亨기자)
- 여성독자들에게 명상서적 붐-물질적 풍요가 낳은 ‘인간성회귀’현상/‘심오한 동양정신 인스턴트化’ 비판도(중앙일보 5월22일 李憲益기자)

- “인기수필집 거의 빛좋은 개살구”-전문수필가 최근경향 문학지 통해 비판/고독·방황 등 주제 감상적 뉘드리/청소년 겨냥 미사여구... 베스트셀러 조작도(경향신문 5월22일 安健熾기자)
- 평생모은 口傳說話 총정리-원로 민속학자 任哲宰翁/평안·황해도 편 이어 함경·강원도편 곧 출간/“巫歌서 우리 천지개벽神話 발견은 큰 횡계”/일제 때부터 자료수집... 방언 사용해 민속연구에 좋은 자료(세계일보 5월23일 徐福任기자)
- “蘇 관련서적 출판폭 넓어졌다”-문학·역사 등서 경제·철학·총람까지/피상적 관심 넘어 본질적 해부단계(세계일보 5월23일)
- “佛文學의 오늘” 폭넓게 조명-金華榮 비평에세이 「프랑스문학 산책」/투르니에 등 동시대작가 20여명 돌아봐/은은한 ‘정신의 풍경’들에 새로운 발견(세계일보 5월23일)
- 戰後 격동기 학생시인들의 ‘자화상’-50년대 學園詩壇 10년... 303인 「詩의 고향」출간/10대가 본 현실·사춘기 서정 담겨/한국문단 중견들의 첫 모습 흥미(조선일보 5월23일 金明煥기자)
- 「조선通史」등 북한사학 첫 평가-한국사학술회의서 서술동향 분석/고조선 관련 사료발굴 높이 평가/김일성 중심... 민중주체사관은 모순 지적(조선일보 5월23일 金泰翼기자)
- “복음성가집 폐내기 러시”-찬양전도, 경연대회, 교회집회 확산따라/국내창작·번역곡·애창곡 등 70여종 시판(국민일보 5월23일 金寶亨기자)
- “원로중견작가들 에세이출간 바람”-金廷漢·崔仁勳씨 등 10여

- 명/대형서점 인기서적순위 올라(서울경제신문 5월23일)
- “요절시인 奇亨度를 기린다”-유작집 「입속의 검은 잎」 출간/‘참여’도 ‘순수’에도 기울지 않은 獨自詩세계/주로 냉혹한 현실과 부조리한 삶을 주제로 부각/“90년대 이끌어갈 도시서정시의 모델” 평가(세계일보 5월24일 梁憲錫기자)
- 북간도 지식인의 삶 형상화-연변 동포 金成輝씨 「사랑이여, 너는 무엇 이길래」 출간/85년부터 3년 동안 쓴 장편서사시/교포시단선 ‘사랑의事典’으로 애송/지난 4월 귀국... 李浩哲씨와 ‘작가의 집’ 건립도 협의(서울신문 5월25일 李憲淑기자)
- 학술에서 잡학까지 다양해진 사전편찬-학회 연구성과 집약정리 가장 활발한 편/영세 출판사서 주도... 사회적 관심 절실(한겨레신문 5월25일 신연숙기자)
- 번역문화 UCC가입 후 뒷걸음질-소설 외에 신간출판 거의 없어/과학·기술분야는 87년 이전 것 재탕(중앙경제신문 5월26일 金龍善기자)
- 해방 전 희곡자료집 출간-양승국편 「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」/「창조」·「백조」등 발표작 수집/10권에 4백여 작품 실어(서울경제신문 5월26일)
- 신문·잡지 발행부수 公査기구 한국 ABC협회 31일 창립-발행사·광고주·광고사 등 31개社 참여/“땀부나 찍나” 광고주 알 권리 충족/언론공신력·광고료공정성 제고/판매·배포부수 협회서 조사 認證... 미국식 모델 채택(조선일보 5월27일 鄭重憲기자)
- 馬光洙의 “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”-여성서서 거센 비판/여성신문, “성해방 아닌 보수적인 남성쾌락

- 주의”/가정법률상담소, “긴 손톱의 백치미여인은 여성상 왜곡”/馬교수, “사랑에 대한 남녀 심리구조 분석한 것”(중앙경제신문 5월28일)
- 아동도서 3권 5월 베스트셀러에-「꿀짜들의 고민」 등에 애정의 시각(경향신문 5월29일 安健熾기자)
- “전통만 먹고 살 수 없다. 명문출판사 변신”-무거운 이미지 벗어 버리고 젊은 독자들 겨냥/정음, 음유, 현암, 어문각 등 거듭나기 시도에 일단 성공/참신한 아이디어로 연속 히트, “내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” 10만부 팔려(스포츠서울 5월27일 오정국기자)
- 만화 등 흥미위주로 독서-서울YWCA 중고생 독서생활 조사/5명중 1명 “거의 읽지 않는다”-대부분 학교서 독서지도 희망(중앙경제신문 5월30일 金龍善기자)
- 변신하는 대륙의 내면 중국현대문학 소개 활발-봉건말기에서 ‘상흔문학’, 대중연애소설까지 망라/화제작 「인간아 인간아」 「부용진」 중단편, 전집도 나와/“사회주의 신뢰 속에서 다양한 몸부림” 읽을 수 있어(한겨레신문 5월30일 조선희기자)
- “상업성 내건 명랑소설이 동심 흐린다”-좌담, “우리 어린이가 읽을 책은 어디 있나”/넘치는 외국 동화... ‘심정’은 몰라도 ‘백설공주’는 알아(조선일보 5월30일)
- 중국책 본토의 韓譯版 그대로 출간-「중국通史」 「대중을 위한 철학」 등/주로 연변동포 위해 옮겨진 책들/국내 번역보다 오히려 이해 쉬워(한국일보 5월30일)
- “허위·과장 광고에 속지말자”-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‘인쇄출판물 광고심의위원회’ 구성... 27개 주간지에 첫 메스/소비자피해 ‘원천봉

- 쇄’... 음란, 퇴폐성도 ‘不可’/‘최고’ 표현, ‘內衣입은 사람 클로즈업’ 등 시정건의 대상(국민일보 5월30일 金玄德기자)
- 父子가 한지붕 두출판사-각각 평화·진선사 운영하는 許昌成·眞씨/아버지집에 세들어 독자경영/편집·판매 어려운 일 상호보완(한국일보 5월30일 徐華淑기자)
- “건전한 가정 밝은 어린이”-자녀 교육 지침서 홍수/30~40여종... 사례들어 부모역할 제시(동아일보 5월31일 宋煥彥기자)
- 인물연구서 출간 늘어-구성 치밀... 대상도 외국인까지 확대(한국경제신문 5월31일)
- 「중국현대문학」 20권 출간-魯迅~王蒙 최근작 집대성/대만 현역작가 작품도 수록/격동속의 문학흐름 한눈에(중앙경제신문 5월31일 朴海鉉기자)
- “역사공부 쉽고 즐겁게 하게 된다”-「만화 한국사」 출간 활기/화가·전공학자 짝이뤄 ‘고대~5공화국’ 전집 엮어/‘항일투쟁·광주항쟁 등 민중투쟁 담은 기획도(한겨레신문 6월1일 신연숙기자)
- 「한국漢詩」출간... 1800수 國譯-82세 金達鎭翁/개혁 꿈꾸던 평민들의 저항시 ‘햇빛’/고전과 현대 연결... 국문학연구 길잡이(중앙일보 6월1일 李憲益기자)
- “책 제목이 길어지고 있다”-확실하게 책내용을 전달/「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」 등 인기/출판사의 ‘시선끌기’ 경쟁도 한몫(중앙경제신문 6월2일 金龍善기자)

## 동행 기획

표지디자인·본문편집·제작

서울·중구 충무로 4가 132-5호

279·1323

## 번역 전문

일본어(고전·현대어)  
영어  
중국어

- \* 신속·정확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한국인의 감각에 맞게 제2의 창작 정신으로 번역함.
- \* 문학작품·전문서적 등 어떠한 번역물도 다 취급함

세계외국어학원 번역부  
☎ 553 9015~6

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.  
「여름새벽」으로 연락하십시오.  
「여름새벽」은 일급 장애인들이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.

## 여름새벽

◀ 표지디자인·본문디자인·출판광고디자인 ▶

121-21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4-2번지 ☎ 338-6269

## 유진 AD

입력에서 출력까지  
온라인  
전산 시스템 가동

레이저 프린트를 이용한 교정

● 전산사식·사진식자·편집·광고기획  
TEL. 273-6486 FAX. 273-6173

서울특별시 중구 적동2가 69 (동명 BD3층)